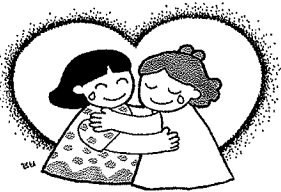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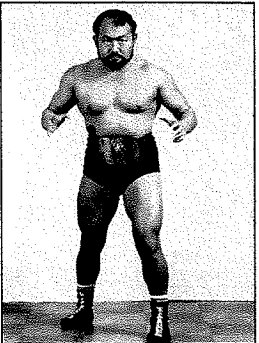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당부**



1. 하루 시작은 30분쯤 앞당겨라.
2. 자리에서 일어나면 침구를 반듯하게 정리해라.
3. 욕실 거울은 맑게 닦고 젖은 신발을 그대로 두지 마라.
4. 화장을 하고 나면 주변은 처음처럼 정돈해라.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치마를 입어라.
6. 앉을 때는 가지런히 다리를 모아라.
7. 기쁠 땐 목젓이 보이도록 웃어라.
8. 자신을 아끼고 예뻐 여겨라.
9. 방은 오늘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시는 것처럼 정돈해라.
10. 불일이 끝난 뒤엔 화장실에 추한 냄새를 남기지 마라.
11. 외출에서 돌아오면 신발을 정리해라.
12. 남보다 조금 더 밥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라.
13. 이십대를 전후하여 평생 머리맡에 둘 책 한두 권을 결정하고
14. 그 외엔 일주일 이상 같은 책을 두지 마라.
15. 책상 위에는 컴퓨터만 고집하지 말고 시집도 두어라.
16.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정직하게 투시해라.
17. 함께 먼 방길을 동행해 줄 친구를 만들어라.
18. 어른들 말씀 중에는 무릎을 꿇고 눈빛을 낮추어라.
19. 마음이 시키는 것은 용기 있게 도전해라.
20. 귀는 열어 두더라도 혀는 함부로 쓰지 마라.
21. 일상 속에 예술적 감각을 끌어들이라.
22. 자신감과 열등감을 무기로 삼아라.
23. 세상이 가르쳐 준 손익계산서에 집착하지 마라.
24. 완전한 어른을 기대하지 마라.
25. 마음의 병은 자연으로 치료받아라.
26. 지식은 머리에만 두지 말고 몸으로 끌어 내라.
27. 부자를 꿈꾸되 많이 가지지 마라.
28.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라.
29.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라.
30. 높은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즐겁게 낮추어라.
31. 큰 것을 볼 땐 작은 것을 놓치지 마라.
32. 교과서를 탐독해라. 그리고 버려라.
33.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34.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셔라.
35. 하루의 끝은 감사 기도로 마쳐라



레슬러 장영철
 흑백 TV조차 귀하던 60년대. 김일의 박치기, 천규덕의 당수가 있었다면 백드롭은 장영철 선수였습니다. 파킨슨 병과 싸우다 8일 별세했다는 소식에 항우 장사도 빚겨 갈 수 없는 세월 앞에서 겸손해 지는 마음입니다.



(장영철 선수를 병문안하는 김 일 선수....그도 어느새 80세가 다 되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3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8월 13 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용혜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병으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 조차 아름답고
 삶을 뒤돌아 보아도 후회함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할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후회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 용서하심을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서로 사랑한라는 말을 남기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 고요히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말씀따라 행하기▶
 질병과 슬픔은
 왔다가도 가지만
 미신에 사로잡힌 영혼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사소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부(富)로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7(시121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92장	다 같 이
기 도 Pray		박일영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6:12-1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12제자 연구(10) "누구보다 열심이던 시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59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교 회 생 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1. 교우소식
 <부친 별세: 한국> 박종화 집사. 부친 별세(12일) 소식 받고 급거 한국행.
 이민자로 사는 우리, 늘 이처럼 임종을 못 지키려 드리는 불효자입니다.
 <박성천 목사> 바누아루 선교위해 1주일간 바누아루 방문(16일-23일)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15일(화) 오후 1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교우와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절
 실히 필요합니다. 여성교우들의 참여 바랍니다.
3. 성전건축을 위한 계획 "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
 * 성전건축을 위한 Plan 설명을 갖습니다
4. 교사를 위한 오후 예배 <일시> 주일 오후 2:30 <장소> Hall
 *예배참석도 못하며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께 늘 미안함을 안고 있었습니
 다. 오늘부터 오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친교를 나누겠습니다
5. 수요예배(민수기 강해) <일시> 수요일 저녁 7:30분
 *언젠가 내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오늘 흘러버린 예배
 시간들 앞에 부끄러움뿐 일 것입니다.
6. 권사 모임: 예배 후 유아실

◆8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30	현석호	백제성	본 당: 김순자
6	김교섭	양경배	임혜자
13	박일영	이근평	현 관: 김교섭
20	이광희	이재영	박일영
27	장현중	김교섭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8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월초새벽기도회(1) 여성만의 Heaven(4) 연합부흥회(9-10) 구역예배(11)
13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5)
27	식사친교주일

◀착한 시인▶ **Seven daffodils**
(일곱송이 수선화)
Brothers Four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Not even a paper dollar to crinkle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a
thousand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seven
daffodils.
난 커다란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손에 쥘수있는 지폐한장도 없
어요.
하지만 난 저 수많은 언덕위에서 떠오르는
아침을 보여줄수 있어요.
또한 당신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일곱송이
수선화를 드릴 수 있어요.

Brothers Four의 남성들의 아
름다운 화음과 여성스러운 노
란 수선화가 참 잘 어울리는
봄이 되었습니다.
금색 햇빛 나는 날도, 차가운
빛물 머금은 날도 노란 수선화
는 누구에게 주고 싶을 만큼
깨끗하게 피어 있습니다.
또 한번 맑은 수선화 일곱송
이의 봄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있다면 따뜻한 황금색으로
기억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